청화스님은?

50여년 일종식 79세 매주 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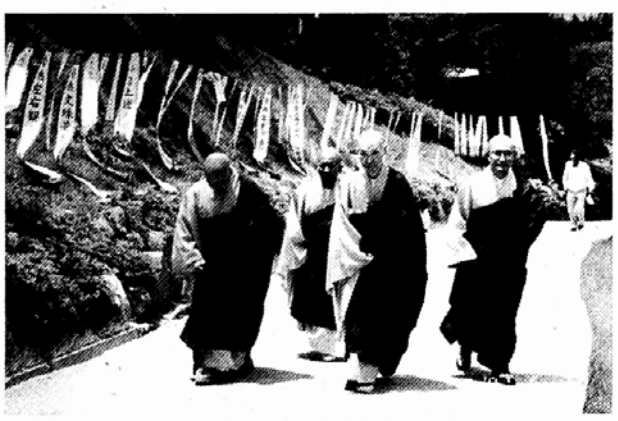


1923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난 스님은 1947년 백양사 운문암에서 금타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이며, 현재 전남 곡성 성륜사에 주석하고 계신다.

출가이후 은사 금타스님의 가르침을 좇아 50여년간 대흥사, 진불암, 상원암, 남미륵암, 월출산 상견성암, 백장암, 벽송사, 백운산 사성암, 혜운사, 태안사 등의 토굴에서 묵언과 일종식 및 장좌불와 수행에 전념했다. 60세가 넘어서야 토굴생활을 접은 스님은 1985~95년 곡성 태안사에서 머물며 당시 폐찰이 되어가던 태안사를 중창했으며, 95년~99년 미국 삼보사와 금강선원에 머물며 현지의 불자들과 교포불자들에게 불법을 전했다. 특히 95년 1월 동안거 중에 7일간 대중을 위한 '순선안심탁마법회(純禪安心琢磨法會)'를 열어, 참다운 선수행의 도리를 설하기도 했다.

스님은 태안사때부터 지금까지 매월 첫째주 정기법회에 법문을 하신다. 이 법회 때마다 전국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기위해 불자들이 모여든다. 미국에 머물 당시에도 스님의 법문을 청하는 국내 불자들의 성화에 못 이겨, 98년 일시 귀국해 전국의 사찰과 단체에서 순회 법회를 하기도 했다.

요즘 스님의 법문은 현상적인 문제를 떠나 본체론적인 문제에 집중돼 있다. 우주의 근본도리가 무엇이며, 내 본래면목이 무엇인가. 또 부처와 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근원적인 문제들에 대해 설하신다. 스님은 3일 혜운사 법회를 시작으로 9일 서울 조계사, 10일 동산반야회관, 13일에는 강원도 양구 군법당에서 깨달음의 법문을 설하는 등 노령에도 중생교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항상 겸손하시고 자비하신 스님의 모습에서 불자들은 환희심을 내고 스님처럼 수행하고자 새롭게 발심하게 된다.

함으로 한치의 게으름도 용납없이 수행에 매진하셨다고 한다. 직접 끼니를 만들어 잡수시고, 의복 빨래도 직접 하셨다. 한 겨울에도 찬물에 목욕을 하는 등 철저히 정진했다. 스님은 지난 95년 미국으로 건너가 팜스프링 금강선원에서 3년간 하루 한끼 공양과 묵언, 장좌불와의 정진결사를 성취하셨다. 현재 청화스님은 80에 가까운 세수지만 참선과 묵언수행을 철저히 지키시는 등 여전히 엄격한 수행의 길을 걷고 계신다. 그런 스님이 불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가르침은 계율을 지키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률 가운데 부처님이 설하신 계율 만큼 합리적인 것은 없습니다. 계율은 우리 사회생활에서 꼭 지켜야 할 우주의 질서입니다. 유교의 인의예지신이나,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십계명, 그러한 세계종교의 우수한 도덕률도 다 불교의 계율에 들어있습니다. 계율만 제대로 지키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마음도 편해지고 주위도 편해집니다. 우리가 참선염불을 해서 깊은 명상에 들어가려 하더라도 계율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흉내만 낼 뿐이지 마음이 정화가 안됩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마음의 정화를 도모하는 것인데 계율이 밑받침 안되면 명상을 해서 이루는 마음 정화는 올 수가 없지요."

혜운사에서 스님은 환한 미소로 기자를 비롯한 내방객들을 맞았다. 무릎을 꿇고 앉은 우리에게 연신 편히 앉으라고 하셨다. 옆에 있던 한 분이 "편히 앉지 않으시면 스님께선 불편해서 말씀을 제대로 못하십니다. 편하게 앉으세요"라고 눈치를 준 후에야 무릎을 풀어 편한 자세를 취했다. 스님께 옛날 수행하던 시절 이야기를 해달라고 청했다.

"내가 수행은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러고 있습니다. 수행을 잘 했으면 삼명육통을 다해서 신통자재할 것인데, 수행을 흉내만 내놔서 잘 못했어요. 그래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후회만 막심합니다. 당시에 계행도 훨씬 더 철저히 하고, 공부도 용맹정진을 거듭했으면 진작 생사대사를 끝내버렸을 터인데... 나는 지금도 생사대사를 다 끝내버리지를 못했거든요. 공부를 시원찮게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언젠가 기자가 서울에 있는 책방 여시아문에서, 안거를 마치고 시자와 함께 책을 사러 오신 스님을 우연히 만나 뵙고, 안부를 여쭈었던 적이 있다. 그때도 스님은 "나이가 들어서도 묵언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30~40대에 열심히 공부하고, 나이 들어서는 중생교화에 힘써야 마땅하나, 아직 공부가 덜 돼서 중생교화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참된 수행에 이르기 위해 묵언수행은 필수입니다. 정평있는 수행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라며 겸손해 하셨다.

스님께 다시 여쭈었다. "스님, 공부하다가 막힐 때는 어찌해야 하나요? 특히나 요즘엔 다양한 수행법이 유행해서 불자들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수행에 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모든 명상법이 다 좋기는 좋은데, 그런 법은 해탈의 법이 아닙니다. 이른바 생사대사를 해탈하고 성자가 되는 법이 아니라, 불교적인 의미로 말하면 유위법이라. 삶의 유한적인 공덕을 위해 하는 법이기 때문에 몸이 좋아진다든가, 머리가 맑아진다든가 하는 데에 관심을 둔 사람들은 좋겠지요. 그러나 종교인으로서 정말로 생사윤회를 떠나서 부처가 되어야겠다, 성자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들에겐 미흡합니다. 미흡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제시한 수행법으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 하는 데는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구경(究竟)의 경지라고 하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부처님법과는 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근본불교의 수행법인 위빠사나도 삼매에 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위빠사나가 끝이 아니라 이 위빠사나를 통해서 삼매로 나아가면 좋지요. 그러나 보통은 위빠사나가 제일 수승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요. 부처님의 명상법이 제일 완벽하고, 가장 최상의 수행법입니다. 부처님 명상법은 바로 성인이 되고, 생사대사를 초월해서 영생으로 가는 법이기에 가장 완벽한 법입니다. 다른 법은 최상의 법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과정일 뿐입니다. 다른 법은 유한적인 공덕이 크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성을 알고 하면 좋습니다."

> "생활속 가장 쉬운 수행법은 염불 부처님 명호 언제나 염하세요"

하루 하루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실 생활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잡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청했다.

"부처님 법은 쉽다고 하면 제일 쉽습니다. 어째서 쉽다고 하느냐면 우주의 원리를 보탬이 없이 그대로 정확히 말씀하신 것이 부처님 법이기 때문입니다. 생활속에서 가장 쉽게 행할 수 있는 수행법은 염불입니다. 염불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요즘 사람들은 체계가 복잡한 것만을 높은 줄 알고 염불은 너무 쉬우니까 소홀히 생각한단 말입니다. 명호부사의라! 그 이름 자체에 부사의한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음성 모든 형체 하나 하나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최상의 개념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 이름입니다. 제일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부처님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입니다. 삼세제불이 모두 순수한 이름입니다. 우주의 자비가 바로 관세음보살인 것이고, 우주 생명자체가 바로 나무아미타불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님은 불자들에게 수행방법으로 어느 한 방법에만 치우치지 않고 이 성적인 사람에게는 화두선으로, 의지적인 사람에게는 묵조선으로, 각기 근기에 맞도록 이끌어주신다. 특히 스님은 지정의(知情意)를 조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염불선(念佛禪) 제창하기도 하셨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현대인들에게 알맞은 행법이 인간의 근본을 되찾는 염불법이라 설하시는 스님은 염불에 화두를 붙여 '염불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참구하는 방법과 본래가 부처라는 확신을 갖고 부처님의 법신을 관하는 실상염불(實相念佛)의 방법을 통해 깨달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가르침을 주셨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수완스님의 스님이야기 — 문혜관 스님

문혜관 스님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해남 대둔사로 출가 득도하였다. '혜관' 이란 법명을 쓰는 스님들이 많기에 그들과 구분하기 위해 문씨 성을 붙였다. 대둔사는 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긴 휴정서산 스님을 비롯 편양언기, 초의 스님 등 수많은 고승들이 수행 정진한 유서깊은 고찰이다. 그리고 해남은 조선시대 고산 윤선도와 다산 정약용 등 많은 대 문호들이 귀양와서 대둔사 스님들과 교류하며 시와 차를 음미하던 고장이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차 한잔에 시 한구절 음미하는 것과 창 한가락 하는 정도는 누구나 하는, 예사로운 일이다. 혜관스님도 대둔사에 있으면서 그곳을 찾는 수많은 시인묵객들을 자연스레 접하게 되었고 타고난 문학적 감성은 물을 만난 고기처럼 그를 시인이 되게 했다.

혜관 스님이 문학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시기는 80년도에 중앙승가대학을 마친 후 다시 대둔사로 내려가서 해남의 남촌문학 동인으로 작품을 발표하면서 부터이다. 그러던 그에게 엄청난 시련이 있었다. 간간이 지뢰 터지듯 발생하는 종단사태의 여파로 80년대 중반 예전부터 대둔사에 살고있던 박한영 스님 계통의 제자들이 갑자기 내몰리게 되었다. 그때 혜관 스님도 출가본사인 대둔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혜관 스

동인지 활동 · 문학상 제정
불교문학 발전에 공헌

님은 심성이 매우 곱고 여린 사람이다. 그는 대둔사를 인연하여 득도하였고 또 그 대둔사로 인하여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아직도 그는 대둔사와 해남에 대한 애정을 가슴 가득히 안고 살아간다.

혜관 스님이 대둔사를 떠나 서울로 거처를 옮긴 것은 불교문학적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오현, 정휴, 청화, 성우, 진관, 지현 등 상당수의 승려 시인들이 왕성한 활동을 해오다가 80년대 중반부터는 활동이 뜸해졌다. 이 무렵 서울로 오게된 혜관 스님은 우여곡절 끝에 90년 4월 불교문학포교원을 홍은동 백련산 기슭에서 열고 5월 '큰 수레 글나눔'이라는 시 동인을 결성하여 문학활동을 시작하였다.

〈촛불 없이도 이 어둠을〉이란 첫 동인 시집을 91년 10월에 냈다. 책을 배포하고 난 다음날부터 항의가 빗발쳤다. 미당 서정주 선생의 글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베껴 쓴 어리석은 중생이 있었다. 혜관 스님은 미당 선생을 찾아가서 자세히 살피지 못하여 과오를 범했다며 사죄드렸더니, 불교문학 발전을 위하여는 더 큰 어려움도 감내해야 한다며 오히려 격려를 받고 왔다. 그후 동인지 〈돌의 탄생〉과 〈이슬을 털며〉, 〈길 없는 길에 서다〉를 냈고, 무크지 〈문학과 삶〉을 1회 발간 후 계간 〈불교문예〉를 95년 겨울호부터 지금껏 발행하고 있다. 또 91년부터 94년까지 '삼오문학상'을 제정, 운영하다가 95년부터 '현대불교문학상'으로 명칭을 개칭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동인 '큰수레 글나눔'으로 시작하여 지금의 '현대불교문인협회'가 되기까지, 또 계간 〈불교문예〉와 '현대불교문학상'을 현재의 위치에 이끌어 놓기까지 혜관 스님의 현신적인 노력과 원력이 없이는 불가능했다.

한국문학은 우리 나라에 불교가 전래되면서부터 비로소 문학적 형태를 갖추어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불교는 한국문학의 태생적 근원지라 할 수 있으며, 삼국시대 이후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쳐 근,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교사상은 한국문학의 큰 줄기를 이루어 왔다. 한국문학의 시원이라 할 수 있는 향가는 불교의 본래 목적인 중생교화와 해탈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이후 조선시대까지의 구비문학에서 시, 소설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작품에서도 불교적 구원사상이 배경으로 되어왔다. 이렇듯 우리문학은 불교 속에서 태동하여 성장했으며 근, 현대에 이르러 서구문학의 영향을 받아 보다 체계적이고 시험적인 발전을 하게되었다. 그 과정에서 불교적 사유와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작가들이 주류를 이루며 한국문학사에 길이 남을 수많은 명작들을 남겼다.



문학은 어느 특정집단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매스미디어 시대인 현대 사회는 나(我)를 어떻게 보다 양질의 정보화를 시킬 것인가 경쟁하는 사회이다. 보다 양질의 정보화를 시키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자기표현 방법을 개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문학은 현대의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그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불교문학은 시 쓰고 소설 쓰는 몇몇 사람들만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조계종단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고있지만 아직도 최소한의 활동을 하기에도 힘겹다. 좋은 작품을 돈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작품을 돈으로 살 수는 있다. 가장 최상의 문학작품이 부처님 경전이라고 볼 때 지금은 현대인의 정서를 불교적 사유와 그릇으로 담아낼 수 있는, 이에 버금가는 문학작품이 필요하다. 불교 문학에 보다 폭넓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최상의 문서포교일 것이다.

정취암 한주



1차분 20권 완간기념 특별가 판매



• 판매기간 : 2001. 9. 15까지(정가:각권 9만원, 총180만원)
• 특별보급가 : 120만원(20권 1질, 카드분납 가능)

1차분 수록대상(1996~2000년)
통도사 · 해인사 · 송광사 · 직지사 · 월정사 · 화엄사 · 선암사 · 금산사 · 선운사 · 마곡사 · 법주사 등 11개 본말사 564개 사찰 및 박물관 7개 소에 소장되어 있는 1,621점의 탱화(3,674컷 수록)

소장하면 소장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책

◆ 한국의 불화를 집대성하기 위해 전국의 사찰 및 국공립 · 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등 국내외에 산재한 불화를 직접 조사하여 수록했습니다.

◆ 원색도판을 풍부하게 실어 원화를 직접 대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으며, 각 불화에 대한 해설과 함께 畵記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韓國의 佛畵

불교출판 사상 최대의 불사, 두 번 다시 하기 힘든 한국불화의 집대성

해를 거듭할수록 훼손으로 인해 친견하기 어려워지는 각종 불화들!
우리의 성보인 이 불화(탱화)들은 장엄한 불국토의 화현이요
신심의 결정체이며, 불보살님의 원만한 상호에서 우러나오는 복덕의 광명은
우리의 어둠을 없애주고 간절한 바람을 성취시켜 줍니다.
저희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는 『한국의 불화』 1차분 20권의 완간에 이어
2차분 20권의 차질없는 간행을 새천년의 원으로 삼아 일심으로 정진하겠습니다.
부디 이 기회에 불화집을 구입하고 또 2차분 회원이 되시어
불보살님과 함께하는 인연을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보문화재연구원 총재 / 석정 이사장 / 법하 원장 / 김현준
이사 / 무주 무현 동욱 태허 정우 명신 지현 정수 현기 우진
임창욱 홍윤식 장충식 손창길 조해수 조경숙

구입문의 / 성보문화재연구원 ☎ (02) 587-6613, 701-6830, 6832 팩스 (02) 586-9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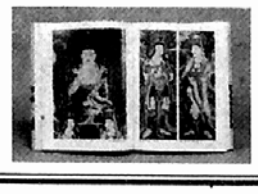
『한국의 불화』 2차분 20권 불사에 동참을!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는 **올해부터 향후 5년에 걸쳐 2차분 20권을 편찬함으로써**, 이 땅의 독특한 성보요 전세계의 자랑거리인 우리의 불화를 총망라하여 **『한국의 불화』 총 40권을 완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매년 4권씩 발간하는 이 불화집의 편찬은 방대한 예산과 많은 인력, 그리고 지극한 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야말로 불교계 전체의 일이요, 감히 한 연구단체에서는 이루어내기 어려운 불사입니다. 부디 시방의 불보살님과 인연을 맺는 이 불사에 뜻있는 분들이 동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

• 회원 모집기간 : 2001. 9. 15까지
• 회원동참비 : 120만원 (20권 1질, 카드분납 가능)

▶ 회원이 되신 분은 20권 각 권마다 시주질(이름)을 밝혀 불연을 영구히 남깁니다.

原畵 그대로의 화려함이 살아 있습니다



○ 판형 : 가로 257 × 348㎜ (타블로이드판형)
○ 면수 : 각권 250쪽 내외 (원색화보, 해설, 화기 수록)
○ 장정 : 전면 컬러 · 양장제본
○ 발행처 : 성보문화재연구원